



## 미래의 우주천문분야 협력을 위하여 공군과 손잡다!



### ■ 한국천문연구원-공군 확대 협의회

한국천문연구원과 공군은 2007년 9월 14일 제2회 천문연-공군 확대 협의회를 천문연구원장, 공군전력기획처장 등 양 기관 총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6월 19일에 개최된 1차 확대 협의회에 이어 1년 만에 개최된 것으로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굳게 인식하고 향후 발전적 관계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

지난해 1차 확대 협의회에 앞서 양 기관은 “우주분야 상호 협력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그 취지를 살려 1차 확대 협의회에서는 6가지 안건이 논의된 바 있다. 6가지 안건은 지난 1년간 양 기관의 실무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번 2차 확대 협의회에서는 더욱 발전된 4가지 구체적 안건에 대해 논의되었다. 양 기관은 각각의 안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하였으며, 향후 실무진 간의 협의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각 안건은 10분 발표 및 5분 토론으로 구성되었으나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으로 인해 원래 계획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토론에 할애하였다.

1
2
3

- 1, 2\_제2차 확대 협의회(2007년 9월 14일)
- 3\_“우주분야 상호 협력 합의서” 체결(2006년 6월 19일)



### ■ 천문연-공군 협력 내용

제1차 협의회를 통한 “우주분야 상호 협력 합의서” 체결 후, 한국천문연구원과 공군은 우주분야 외에도 과학대중화와 견학, 그리고 실무 교육까지 다양한 분야를 통해 교류와 협력을 진행해 왔다. 양 기관은 2006년 6월부터 2007년 8월까지 1년 동안 행사 공동 개최 4건, 천문연구원 방문 4건(공군 118명), “우주 실무 전문가 과정” 연수 실시, 공군 1인 UST(과학기술연합대학) 박사 과정 진학, 공동 연구 도출 활성화, 행사 지원 및 창립 기념일 특별 포상 등 다양한 교류 협력이 진행된 점에 대해 크게 만족을 표시하였으며, 향후 우주천문분야에 대한 위탁 교육과 관련하여 UST에 석사과정을 추가 개설하고 적극적인 인재 양성에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